

캐나다 문학과 관광

- 『빨강머리 앤』을 중심으로*

고 길 환(위덕대학교)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캐나다 문학
3. 『빨강머리 앤』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캐나다의 어원은 16세기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 1491-1557)가 세인트 로렌스 강에 도착하였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언어로 그 곳을 ‘카나타(Kanata: 마을 또는 작은 공동체)’로 부른 것에서 기인한다. 그 명칭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캐나다는 태평양에서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드넓은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기후와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인종의 국가인 만큼 문화도 다양한 곳이다. 또한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 중 하나이며, 연방 국가의 형태로 10개 주(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알버타 Alberta, 마니토바 Manitoba, 사스카추완 Saskatchewan, 온타리오 Ontario, 퀘벡 Quebec, 노바스코샤 Nova Scotia,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 뉴펀드랜드와 래브라도 Newfoundland & Labrador)와 3개의 준주(準州)(노스웨스트 테리토리 Northwest Territory, 누나부트 테리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위덕대학교 교원 연구년 지원에 의한 논문임.

토리 Nunavut Territory, 유콘 테리토리 Yukon Territory)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캐나다-물론 캘거리(Calgary)와 토론토(Toronto) 등의 홍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재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지구 온난화의 폐해보다는 혜택을 더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큰 나라이다. 캐나다는 또한 자본주의의 비인간화의 속성을 1930년대에 파악하고 1940년대에 사회주의로 방향을 바꾸어 교육과 의료 제도의 천국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 항상 5위 안에 자리하고 있다.

미래 가치가 훨씬 큰 캐나다는 현재도 선진국, 즉 G7 국가 중 하나인데, 캐나다 경제의 핵심은 천연자원과 관광, 교육이다. 이러한 캐나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문학적 연구는 캐나다 역사에 대한 소개와 퀘벡 문학을 소개하는 책만 출판되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문학과 관광의 학제간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경제적 효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문학의 구체적인 사례로 캐나다 문학과 관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인문학 중흥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Stratford-upon-Avon)을 보면, 인구가 약 2만 5천명 정도이나 매년 300만 명의 문화 순례객이 찾고 있다.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의 배경이 되는 하워쓰(Haworth)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 캐나다 문학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캐나다 각 주를 대표할만한 문학과 관광 산업의 특성을 소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캐나다에서 문학이 관광 산업에 영향을 끼친 구체적 사례로, 문학 작품인 『빨강머리 앤』(*Anne of Green Gables*)과 그 작품의 영향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줄여서 PEI)주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캐나다 문학

지금까지 캐나다에는 많은 작가와 작품이 있었지만 캐나다 문학은 영미문학의 변방 문학으로만 여겨졌다. 그 이유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캐나다 문학의 상황 때문에, 캐나다 문학의 특징 또는 정체성을 다양하게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물론 2013년 노벨 문학상을 앨리스 먼로(Alice Munro, 1931-)가 수상했기에, 캐나다 문학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캐나다 문학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캐나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 문학이다. 이 캐나다 문학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비평가는 노드럽 프라이(Northrop Frye)와 마거릿 애트우드(Margaret Atwood)가 있다. 프라이는 광활한 초원에서 개척민의 삶을 그린 캐나다 문학의 보편적 주제를 ‘수비대 심리(garrison mentality)’라고 말한다. 이는 등장인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항하는 은유적 장벽을 세운다는 것이다. 프라이는 20세기 후반에는 사회적이지만 창조적이지 못한 수비대 심리가 사회적이지도 못하고 창조적이지도 못한 ‘콘도 심리(condominium mentality)’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트우드는 캐나다 문학 안내서인 『생존』(*Survival*)에서 주제별 특징으로 캐나다 문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영국을 상징하는 것은 섬이고 미국을 상징하는 것은 개척자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중심적인 상징은 생존”(32)으로 본다. 또한 캐나다 문학을, 영웅들의 문학인 미국 문학과는 달리, 희생자들의 문학이라고 주장한다.

애트우드가 제시하는 주제로는 생존, 괴물로서 자연, 동물 희생물, 초창기 사람들, 탐험가와 정착민, 가족의 초상, 실패한 희생, 죽음이라는 일상적인 사건, 마비된 예술가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지닌 캐나다 문학을 캐나다의 각 주의 관광지로서 간략한 특징과 그 주를 대표하는 작가와 더불어 본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가 현재는 영문학과 불문학의 나라이지만, 캐나다의 뿌리인 원주민(First Nations라고 함)의 문학을 먼저 소개한다. 고대 문학이 대부분 그렇듯

이, 구전되어 오는 토착민인 인디언의 문학도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아름답다. 본고에서는 30,000년 전 아시아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간의 육로를 통하여 도착했다고 여겨지는 토착민인 알곤키안족(Algonquian Indian) 시를 보도록 하자. 이 시는 1882년 뉴브런스윅에서 채집된 것이다.

별들의 노래

우리는 노래하는 별들이다;
우리는 빛으로 노래한다;
우리는 불의 새들이다;
우리는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닌다.
우리의 빛은 목소리다;
우리는 정령들을 위해 길을 만든다,
지나갈 정령들을 위해.
우리 중에는 세 명의 사냥꾼이 있다
곰을 쫓는;
그들이 사냥을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우리는 산들을 내려다본다.
이것이 **별들의 노래**이다.

The Song of the Stars

We are the stars which sing;
We sing with our light;
We are the birds of fire;
We fly over the sky.
Our light is a voice;
We make a road for the spirits
For the spirits to pass over.
Among us are three hunters
Who chase a bear;

There never was a time
 When they were not hunting.
 We look down on the mountains.
 This is the Song of the Stars. (22, *The Poets of Canada*)

아름다운 별을 노래하는 이 시에서, 화자(들)는 별과 동일시하면서, 빛나는 별들을 “불의 새들”이라 말하고, 그 역할은 영혼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냥을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는” 완벽한 사냥꾼이라는 자부심과 “산들을 내려다 보는” 위엄을 지닌 존재임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 토착민들은 별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줄여서BC) 주는 캐나다에서 각종 놀이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면적이 944,735km²이며, 25,000km의 해안선과 997개의 국립공원을 지니고 있다. 주의 수도는 빅토리아이고, 최대 도시는 밴쿠버이다. 광역 밴쿠버의 인구는 약 410만 명으로, 주 표어는 "Splendour without diminishment(영원한 번영)"이다.

BC 주를 대표하는 산과 바다의 도시인 밴쿠버(Vancouver)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록키 산맥 여행이다. 이 일정에서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관광지가 ‘마지막 대못(The Last Spike)’이다. “마지막 대못”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캐나다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에 북미의 영국 식민지-캐나다 웨스트(현재 온타리오), 캐나다 이스트(현재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들은 독립적으로 성장, 번영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남북 전쟁 후 보다 강력한 미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궁극적인 합병을 막기 위해 1867년 7월 1일(이 날이 캐나다 독립기념일 Canada Day이다) 캐나다 이스트, 캐나다 웨스트,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등의 영국 식민지 연맹은 모두 영국 북미 조례의 협정 하에서 캐나다 자치령으로 합쳤다. 연방 정부는 총독(국왕의 대리인)과 영국 의회 제도를 토대로 하원, 상원으로 구성된 국회로 이루어졌다. 국가적 관심사(세금 및 국방)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특정’문제(소유권, 시민권, 교육)에 대한 입법권은 주에 주어졌다. 캐나다는 연방이 되자마자 서쪽으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1858년부터 이미 국왕의 식민지가 된 BC 주는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과 철도 연결을 약속받고

1871년에 캐나다 자치령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치적 통합을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끈 것이 캐나다 태평양 철도(Canadian Pacific Railroad) 건설이며, 철도 건설의 마침표를 찍은 ‘마지막 대못’은 캐나다라는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지막 대못’은 레벨스톡(Revelstoke)에서 서쪽으로 28km 지점인 크러겔러치(Craigellachie)에 위치하고 있다. 1885년 11월 7일 철로 버팀목에 스미스(Hon. Donald Alexander Smith)가 마지막 대못을 박는 것으로 캐나다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이 되었던 것이다. 이 공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에, 캐나다의 서사 음유시인인 프랫(E. J. Pratt)은 이 철도 공사를 캐나다의 국가적 문화적 독립과 자율을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의 시 “마지막 대못을 향하여(Towards the Last Spike)”가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사시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시에서 영웅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며, 서사영웅주의의 주된 특성은 인내와 미래에 대한 신념이다. 이 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다.

“The past flushed in the present and tomorrow
Would dawn upon today:”(287)¹⁾

현재와 내일에 밀려난 과거는
오늘 시작될 것이다:

엘리엇(T.S. Eliot)이 『4개의 사중주』 (*Four Quartets*)에서 표현한 시간처럼,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며, 영원히 현재에서 과거로 지나가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순간을 포착하여 고정화시켜야 현존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시간 속에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삶의 한계를 초극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고, 시간 속에 무시간을 경험

1) Bennett, Donna & Brown, Russell(ed.). *A New Anthology of Canadian Literature in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앞으로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함.

하는 영원의 순간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왜소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밴쿠버와 관련된 작가로 일본계 캐나다 작가인 조이 고가와(Joy Kogawa)가 있다. 그녀는 1935년에 밴쿠버에서 태어났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2만명 정도의 많은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강제로 억류되었고 재산을 잃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전쟁의 불의(不義) 때문에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받는 고통을 썼다. 그녀의 대표작은 『아줌마』(Obasan)이다. 침묵, 돌, 개울 등을 강력한 이미지로 활용하여 기억과 망각, 편견과 관용, 정의와 불의 등의 주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소설이지만 현실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인권이라는 면에서 일본계 캐나다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자연 풍경은 정말 뛰어나다. 동양의 선사상이 가미된 듯한 느낌이다. 현재 토론토에 살고 있는 고가와가 어린 시절부터 살던 그린빌 스트리트에 있는 밴쿠버 집(Historic Joy Kogawa House, 1450 West 64th Avenue, Vancouver)에서는 다양한 문학 행사를 하고 있다. 초청 강연이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과 연계된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밴쿠버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서해안의 예술과 모험 중심지인 밴쿠버 아일랜드이다. 50곳의 생태 보호 지역과 1,000년 된 삼나무 숲들 그리고 9,396개의 호수가 있는 북미 서해 연안 최대의 섬이다. 이곳에는 BC 주의 수도인 빅토리아가 유명하다. 빅토리아와 관련된 작가로 빅토리아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로빈 스켈튼(Robin Skelton, 1925-1997)이 있다. 그는 영국 태생의 학자이자 작가, 시인이자 인류학자로 1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는 일본 시의 다양한 형식들, 즉 하이쿠, 센류, 와카, 단카, 세도카, 도도이추, 몬도, 가타우타, 이마요, 초카, 렌가, 소몬카 등을 차용하고 활용하여 창작(고길환, 23)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명인 스켈튼은 새로운 문화와 문학을 수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자신의 문화와 문학 속에 알맞은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처럼 캐나다 문학은 고가와와 스켈튼같은 다양한 문화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또는 새로운 문학의 형식을 수용하여

다양한 문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온타리오 주의 면적은 917,741km²이고, 최대 도시는 주의 수도인 토론토이다. 총 인구는 약 1350만 명 정도이고, 주의 표어는 "Yours to Discover(당신을 기다립니다)."이다. 온타리오 주에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와 때 묻지 않은 자연, 25만 개 이상의 호수와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는 캐나다 최고 높이의 건물인 553m 높이의 CN 타워("CN"은 이 타워를 건설한 캐나다 국영 철도-the Canadian National Railway-에서 유래한 Canada's National Tower의 줄임말인데, 이 말은 거의 안 쓰고 CN Tower를 일반적으로 쓴다), 수많은 포도주 경연 대회에서 수상 경력의 빈티지(vintage-포도주 양조)를 자랑하는 90개 이상의 나이아가라 지역 와이너리(winery-포도주 양조장)가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달콤한 아이스 와인(Ice wine)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와인에 쓰이는 포도는 대개 8~9월에 수확하는 반면, 아이스와인은 한겨울인 1월에 포도를 수확하여 생산한다. 겨울 동안에 포도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수분은 적어지는 것에 반비례하여 당도가 증가한 포도로 생산한 포도주가 바로 아이스와인이다.

나이아가라 지역의 아이스와인처럼 온타리오 주를 대표하는 작가는 마거릿 애트우드다. 그녀는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탄생했고 북부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토론토에서 성장했다. 캐나다 문학을 세계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녀는 문학은 결코 그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학관을 지니고 있고,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집을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예술성을 인정받게 된다. 비단 시집뿐만 아니라 아동 문학 작품과 다수의 소설을 썼는데, 1969년 현대사회에서 거식증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첫 장편 소설인 『먹을 수 있는 여성』(*The Edible Woman*)이 출간된 이후, 12권에 이르는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캐나다 녹색당의 일원이면서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에서 활동하는 그녀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작가이다. 그녀의 후기 작품에는 백인, 남성, 기독교 우월주의와 같은 폭력적 이데올로기가 잘 반영되어 있다.

초기의 그녀는 캐나다인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시가 “원 놀이(The circle game)”인 동명의 시집에서 시인은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계몽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그녀는 이 시집에서 일상생활에 항상 존재하는 기만과 기술이 위협하는 우주의 공포를 다루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야생 동물을 다루면서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노래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돼지의 노래(Pig Song)”라는 작품은 화자인 돼지를 통해 인간의 폭력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인간이 무분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간과 자연은 둘처럼 보이지만 하나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페미니즘 또한 중요하다. 그녀의 대표적인 소설 중 하나인 『시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는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SF)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묘사된 미래 사회는 반복되는 핵 실험과 방치된 환경오염으로 병들어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을 할 수 없고, 극소수의 가임 여성들은 고위급 정부 인사들의 자식 재생산을 위해 강제 동원된다. 그녀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당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세뇌당하고, 생물학적인 노예(시녀)로 전락한다. 이 작품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되는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항상 거론되던 애트우드 대신에 2013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엘리스 먼로가 선정되었다. 체홉(Anton Chekhov)의 천재성을 닮은 작가로 알려진 그녀는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나 이 주에 소재해 있는 런던에 있는 대학(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에서 수학하고 결혼 후 BC 주의 밴쿠버와 빅토리아에서 정착해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녀의 글쓰기 방식은 색다르다. “의식의 흐름” 기법과 중간에서 시작(in medias res)하는 서사시 기법이 가미된 그녀의 글쓰기는, 처음, 중간, 끝 또는 어떤 곳에서도 글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책 읽기 방식이 있듯이, 정해진 길을 가는 방식이 아닌 갔다 왔다하는 방식이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움직임 보이는 그녀의 작품은 이야기의 연대기를 파괴한다. 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단편들과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만이 있을 뿐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먼로의 서술 구조는 대조적인 등장인물들이나 남성과 여성 세계, 또는 시골과 도시 문화의 대립으로 전개된다. 그녀의 단편 소설들은 장

편 미스터리 소설처럼 읽히는데, 깔끔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단편 “사랑의 진행(The Progress of Love)”에서 표현한 것처럼, “포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낡은 퍼즐”(668)을 독자에게 남기는 방식을 취한다.

온타리오 주에서 문학 작품이 배경이 되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문학으로 인해 관광지로 각광받는 곳이 스트랫포드(Stratford)이다. 사실, 토론토 주변은 영국의 도시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은데, 캐나다의 런던에는 템즈강이 흐르고, 옥스퍼드에 가 보면 영국의 옥스퍼드처럼 보도가 모양이 같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 지명을 딴 스트랫포드는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다. 인구 3만 명 정도의 이 작통 도시는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세계 3대 영어 연극제 중 하나를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다. 런던이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에도 있듯이, 실제로 스트랫포드라는 지명은 미국, 뉴질랜드 등에도 있다.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탄생지인 영국 워릭셔 지방의 작은 강 에이번 강가에 있는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 (Stratford-upon-Avon) 이외에 유명해진 곳이 셰익스피어의 유명세와 작품이라는 인문학적 자원을 활용하여 성공한 이 스트랫포드이다. 매년 5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스트랫포드에서 개최되는 '캐나다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은 다양한 연극 내용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1953년에 공연단을 설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과 수준 높은 시설 및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등이 조화를 이루어 세계적인 문화 페스티벌이자 공연 예술의 성지가 되었다.

지역 경제가 몰락해 가고 있던 1950년 초, 잡지 기자인 톰 패터슨(Tom Patterson)이 마을 이름이 셰익스피어의 고향 이름과 같다는 데 착안하여 셰익스피어 연극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본래 스트랫포드는 1830년대에 이곳에 문을 연 “셰익스피어 인”이란 숙박시설이 유명해지자 아예 마을 이름을 스트랫포드로 바꾸었었는데, 시 당국이 그런 패터슨의 제안을 수용하고 일부 지역 유지들이 후원하여 1952년에 스트랫포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었다. 1953년 천막 무대에서 『리처드 3세』(Richard III)와 『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s Well That Ends Well)의 공연으로 시작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이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연극 축제가 된 것이다. 스

트랏포드는 셰익스피어 페스티벌과 함께 훌륭한 관광 서비스 산업 덕분에 엄청난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였다. 공연을 통한 직접적인 수입 외에도 관광 수입이 엄청나며, 부차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트랏포드의 실업률은 캐나다 전체의 평균 실업률보다 낮다. 한때는 공업 중심이었던 온타리오 주의 작은 마을 스트랏포드는 지역 경제의 위기를 맞아 영국의 문학과 문화를 관광 산업과 접목한 세계 정상의 연극 공연을 펼치면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및 공연 예술의 메카가 되었다.

빨강머리 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언급한 노바스코샤 주 태생의 작가로 앨든 나우란(Alden Nowlan 1933-1983)이 있다. 자수성가형 작가인 그는 노바스코샤의 가난한 시골인 스탠리(Stanley)에서 태어났다. 그를 낳을 때 엄마(Grace Reese)의 나이는 15세였고, 엄마가 가출하여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교육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5학년(14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온갖 막노동을 하다가, 16세에 지역 도서관을 발견하고는 주말마다 30Km 정도를 걸거나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도서관에 가서 독학했다. 19세부터 뉴브런즈윅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에 뉴브런즈윅의 작가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의 시는 쉽지만 심오하고, 치밀한 관찰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간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캐나다의 추위를 실감할 수 있는 시 한편을 보자.

캐나다 일월의 밤

얼음 폭풍; 산을
 검은 수정의 피라미드를
 차들이 인광을 내는 딱정벌레처럼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나는 바람에 복종하여 뒤로 걸으면서
 두려운 지식을 갖고 있다
 내 친구들도 공유하고 있지만
 결코 거의 말하지 못하는:
 이곳이 그런 나라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곳
 단순히 집 밖에 있다는 이유로.

Canadian January Night

Ice storm; the hill
 a pyramid of black crystal
 down which the cars
 slide like phosphorescent beetles
 while I, walking backwards in obedience
 to the wind, am possessed
 of the fearful knowledge
 my compatriots share
 but almost never utter:
 this is a country
 where a man can die
 simply from being
 caught outside. (692)

캐나다의 추운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얇고 단단한 얼음(black ice)”이 도로 위 빙판을 만들면 차 운전이 쉽지 않아서(계속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당하기에) 차에서 내려서 바람을 뒤로 맞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추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두려운 지식”이라 표현하고, 이것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 서로 공포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언급하지는 않는 것이다. 걸어가는 것이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지만, 걸어가다가 동사(凍死)할 수도 있을 정도의 추위가 매서운 곳이 캐나다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록키 산맥이라는 관광 자원뿐 아니라 천연 자원이 풍부한 알버타 주와 관련 있는 작가로 로버트 크로취(Robert Kroetsch 1927-2011)가 있다. 알버타 주의 헤이스러(Heisler)에서 태어난 그는 캐나다의 주요한 포스트모던 작가이다. 작가가 되고자 막노동 등 다양하고 특이한 직업을 거치면서 겪은 곤경과 다양한 경험들을 유머스럽게 잘 다룬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신화와 마술 등을 탐구하고 이용함으로써 단순하게 읽을 수가 없다. “마술적 리얼리즘”을 실험한 그는 전통적인 남성의 탐구를 패로디하는데, 작품 속 배경은 모두 캐나다의 대

평원이다. 이는 그가 캐나다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캐나다 작가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포스트모던”하다는 것은 단편화되고 열린 결말로 전통을 전복하기 때문이다.

사스카추완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로는 미첼(W. O. Mitchell 1914-1998)이 있다. 그는 주로 캐나다 서부의 대평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역경에 찬 생활을 해학적으로 다룬 작품들을 썼다. 교사와 잡지의 소설 담당 편집자로도 일했다. 그의 첫 소설 『누가 바람을 본 적이 있나요?』(*Who Has Seen the Wind?*)는 어린 소년의 관점에서 대평원지역 마을의 음울함을 정밀하게 그렸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단편 모음집 『제이크와 아이』(*Jake and the Kid*)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고 리자이나에서는 현재도 연극으로 공연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40-50 년대를 배경으로 보통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단순하고 소박한 세계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교양 소설이자 성장 소설이다.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아이는 사스카추완 주의 가공의 지역인 크로커스(Crocus)에 있는 농장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소년이며, 제이크는 그 농장 일을 도와주는 일꾼으로,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이사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소년의 담임 선생님과 그에 맞서 싸우는 선생님들의 친구 이야기,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 인디언 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 이야기들로 독자에게 눈물과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여자도 인간이다”라는 단편을 보면, 순진한 남자 아이의 여성관이 잘 드러난다.

그들은 면도할 필요도 없고 - 그들은 좋은 냄새가나고, 드레스도 입고, 남자들보다 더 예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죠?”

“They don't hafta shave - they smell fine, and they wear dresses, and they're prettier than men. Well that doesn't mean they aren't humans, does it?”(16)

여성을 이상적인 존재로 여기는 순진한 소년의 생각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미소를 짓게 된다. 여성은 화장실도 안가는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남자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니토바 주와 관련해서는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품 속에 주인공이 거주하는 마니토바 주의 수도인 위니펙(Winnipeg)을 배경으로 한 얀 마텔(Yann Martel, 1963-)의 『파이 이야기』(*Life of Pi*)이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불어를 제 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쓰는 마텔은 “삶의 미묘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영어이고, 불어는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언어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로 글을 쓸 때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하면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파이 이야기』는 화물선을 타고 인도에서 캐나다로 가는 도중에 태평양 한 가운데서 난파당한 채, 구멍정에서 다친 얼룩말과 하이어나, 오랑우탕 그리고 10대의 파이라는 인도 소년과 범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주요 등장인물들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되고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영어 제목은 『파이의 삶』이지만 불어판 제목이 『파이 이야기』(*Histoire de Pi*)이다. 이 작품 속의 환상적인 향해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 마르케즈의 마술적 리얼리즘, 그리고 부조리극의 대가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하기(storytelling)에 관한 이 소설은 작가가 말한 대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삶은 이야기이다...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더 좋은 이야기이다. Life is a story... You can choose your story... A story with God is the better story.”

퀘벡 주를 대표하는 것은 영문학 보다는 불문학이지만, 영어로 문학 활동한 작가들이 많으며, 그 중에 어빙 레이튼(Irving Layton 또는 Israel Pincu Lazarovitch 1912-2006)이 있다. 그는 유태계로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다. 후에 노벨 문학상 후보자도 된 그는 1913년에 몬트리올로 이주해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멸시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어려서부터 인간의 본성과 삶 그 자체의 이중성을 배웠고, 고등학교에서 테니슨의 시를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반해서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 커져서 정치 철학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마르크스와 니체 등을 섭렵하고, 시를 쓰게 되었

다.

뉴브런스윅 주에서 태어난 작가로는 리차즈(David Adams Richards, 1950년 생)가 있는데, 소설가, 수필가, 극작가, 시인이다. 그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소설가로 경제적 곤궁과 정서적 탈취가 노동자 계급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우울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그는 작품의 배경으로 항상 등장하는, 윈시탐에서 발원하여 PEI의 노섬버랜드 해협으로 흐르는 미라미치 강을 위대하게 생각한다. 이 강은 그의 작품의 공동체를 통합시켜주고, 등장인물들에게 휴식을 주는 자연의 세계로 묘사된다. 그래서 그에게 자연 풍경은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한다. 대표작으로는 2000년에 출간된 그의 소설 『어린이들 사이의 자비』 (*Mercy Among the Children*)가 있는데, 권력의 남용에 대해 유일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가족의 결속을 제시하고 있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주를 대표하는 작가는 BC 주를 소개할 때 언급한 시 “마지막 대못을 향하여”를 쓴 프랏(1882-1964)이다. 그는 캐나다에 이미 지즘을 소개하고 캐나다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시 “어서 오라, 죽음이어 Come Away, Death”는 복잡한 극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캐나다 시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시 중의 한편으로 여겨진다. 이 시는 셰익스피어의 『십이야』 (*Twelfth Night*)에서 광대가 노래하는 첫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뉴펀들랜드의 웨스턴 베이(Western Bay)에서 태어난 그는 바닷가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대한 강력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바다는 자연이 인간 개인을 시험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의 시 “뉴펀들랜드 (Newfoundland)”의 마지막 연이 뉴펀들랜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조수와 바람과 우뚝 솟은 험한 바위
 해초와 바다조개
 그리고 부러진 키-
 그리고 이야기가 들린다
 인간의 맥박과 파동의
 불의 영원한 길의
 밤에 살아있는 꿈들의

폭풍에 조금 열린 문들의.

Tide and wind and crag,
Sea-weed and sea-shell
And broken rudder—
And the story is told
Of human veins and pulses,
Of eternal pathways of fire,
Of dreams that survive the night,
Of doors held ajar in storms.(277)

이 시의 배경은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가는 “조수”와 거칠게 불어오다 한 순간 잠잠해 지는 “바람” 그리고 그 조수와 바람을 맞이하는 “우뚝 솟은 울퉁불퉁한 바위들” 그리고 난파당한 배의 흔적을 보여주는 “부러진 방향타”가 있는 해안이다. 그 배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즉 인간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이야기들, 상상과 꿈을 펼친 이야기들 그리고 폭풍에 맞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뉴펀들랜드이다.

각 주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을 살펴본 결과, 캐나다 문학은, 프라이와 에트워드가 설명한 것과 더불어, 캐나다에서 태어난 작가와 이민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지닌 것이 캐나다 문학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캐나다 문학과 관광의 상황이다.

3. 『빨강머리 앤』 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보아도, 문학이 관광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 PEI이다. PEI를 언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냐고 되물지만, 『빨강머리 앤』 (1908)의 작가 몽고메리(Lucy Maud Montgomery 1874-1942)의 고향이자 이야기의 배경인 곳이라고 하면 모두가 “아하, 거기!”

라는 반응을 보이는 곳이다. PEI는 『빨강머리 앤』 덕분에 애틀랜틱 캐나다 4개 주 중에서 관광지로서 가장 인기가 높다. 초록 지붕의 하얀 집인 캐번디시(Cavendish)의 그린 케이블스는, 순례자들이 찾는 하나의 성지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화 상품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다. 이곳에는 매년 여름에만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PEI의 면적은 대략 5,650km²으로 제주도 3배 정도 되는 크기이며, 가장 큰 도시는 주의 수도인 샬롯타운(Charlottetown)이다. 총 인구는 약 15만 명이며, 주의 표어(motto)는 “*Parva Sub Ingenti*”인데 이는 위대한 존재로부터 보호받는 작은 존재(The small protected by the great)라는 뜻이다.

2008년에 발간된 『앤 관광시장: 2007년 출구 조사』(*A Profile of the Anne Tourism Market: Based on the 2007 Exit Survey Data*)에 따르면, 2007년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PEI를 찾은 관광객 총 67만 명 중 25% 정도인 17만 명이 앤 관광지(몽고메리가 근무한 우체국, 생가,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린 케이블스와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장)를 첫 번째 관광 목적으로 왔다.

『빨강머리 앤』을 살펴보면, 몽고메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은 앤(Anne Shirley)의 모험 이야기이다. 11살짜리 어린 고아 소녀가 소년을 입양하고자했던 중년의 남매(Cuthbert)의 농장에 입양되고, 그녀가 집안과 학교, 그리고 마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그려 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5천만 부 이상 팔렸고, 영화와 만화, 텔레비전 시리즈물 그리고 뮤지컬로 전 세계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앤은 총명하고 민첩하며, 놀기를 즐기고 수다스럽고 대단히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창백한 얼굴에는 주근깨투성이고 붉은 머리카락(여기서 빨강머리 앤이라는 제목이 나옴)을 땅고 다닌다. 많은 독자들이 앤을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서 “생각하는 것을 바로 말하기(thinking aloud)” 때문이다.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성장해 가는 아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러한 앤이 표현하는 PEI는 꽃이 가장 잘 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오, 정말로 모든 벚꽃이 만발해 있군요! 이 섬은 가장 꽃이 잘 피는 곳이군요. 저는 정말 이곳을 이미 사랑하고 있고, 이곳에서 살려고 하니 정말 기쁘군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는 것을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산다는 상상을 하곤 했지요, 이곳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요, 그렇지요?

Oh, there are a lot more cherry trees all in bloom! This Island is the bloomiest place. I just love it already, and I'm so glad I'm going to live here. I've always heard that Prince Edward Island was the prettiest place in the world, and I used to imagine I was living here, but I never really expected I would. It's delightful when your imaginations come true, isn't it?(14)

또한 앤이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는 것은 앤 자신이 매튜(Matthew)아저씨에게 하는 말에서 들어난다.

찾아볼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 않나요? 살아있음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지요--정말 흥미로운 세계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반도 흥미롭지 않을 거예요?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지요, 그렇지요?

"Isn't it splendid to think of all the things there are to find out about? It just makes me feel glad to be alive--it's such an interesting world. It wouldn't be half so interesting if we know all about everything, would it? There'd be no scope for imagination then, would there?"(14-15)

마릴라(Marilla)가 녹색 박공의 집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져서 팔려고 할 때,

앤이 레드몬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전혀 희생이 아니라고 하면서)하고 마릴라 옆에서 집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제가 퀸즈 아카데미를 나올 때 제 앞에 펼쳐질 미래는 쪽 뺨은 길처럼 보였죠. 그 길 따라 많은 이정표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 길에 굽은 곳이 있네요. 굽은 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상의 일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굽은 길 자체가 매력이에요, 마릴라.”

"When I left Queen's my future seemed to stretch out before me like a straight road. I thought I could see along it for many a milestone. Now there is a bend in it. I don't know what lies around the bend, but I'm going to believe that the best does. It has a fascination of its own, that bend, Marilla." (303)

이 장면을 읽고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가 1920년에 발표한 그의 시 “가지 않는 길(The Road Not Taken)”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유사한 표현이 1연에 나온다(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쳐다보았지요. long I stood /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시행처럼, ‘길’이 상징하는 인생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굽은 길’ 이후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앤은 오히려 미지의 인생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한 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마릴라가 앤에게 식사를 해야지(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하자, 앤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먹을 수 없다고 하고, 마릴라에게 절망의 심연에 빠져있을 때 식사할 수 있는지 묻고 마릴라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절망의 심연에 빠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묻는다.

"I can't. I'm in the depths of despair. Can you eat when you are in the depths of despair?" "I've never been in the depths of despair, so I can't say," responded Marilla.

"Weren't you? Well, did you ever try to imagine you were in the depths of despair? (26)

항상 실수를 하지만 실수 때문에 기죽지 않고 긍정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지닌 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다중인격의 인물로 묘사하지만,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이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생각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기”를 실행하는, 즉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앤의 모습에서 학생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앤의 이러한 태도에 모든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이렇게 시켜야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에, 자녀들에게 『빨강머리 앤』을 읽히려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제가 과장된 표현을 쓴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엄청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And people laugh at me because I use big words. But if you have big ideas you have to use big words to express them, haven't you?"(15)

『빨강머리 앤』 덕분에 관광지로 유명해진 PEI에서, 문학작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광지는 초록 박공의 하얀 집이 있는 농장 애본리(Avonlea), 작가 몽고메리의 생가, 그녀가 일한 우체국(현재는 박물관) 그리고 그녀의 무덤이 있는 묘지 등이다. 특히 애본리 농장의 집에는 19세기의 가구들과 다리미, 타자기 등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서 집안 모습이 소설을 재현한 것처럼 생생하다. 2층의 창 밖으로 앤과 단짝 친구 다이애나의 만남의 장소였던 ‘유령의 숲(the Haunted Woods)’이 내려다보이고, 집 옆으로 흐르는 개울 등 작품 속 풍경이 펼쳐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강머리 앤을 찾아 PEI로 관광하는 이유는 작품 속에 묘사된 아름다운 풍경과 빨강 머리 앤의 매력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아로 다양한 시련을 극복하고 당당한 인물로 성장하는 앤에게 연민을 느끼며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이 전세계로 홍보된 점도 중요한 점이다.

4. 나가는 말

전 세계에 걸쳐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빨강머리 앤』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PEI는 문학이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다.

캐나다 문학과 관광을 연구하면서, 문학 등의 인문학이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빨강머리 앤』 과 관련된 PEI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스트랫포드의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서도, 문학을 경제적 실익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점도 보았는데, PEI와 스트랫포드를 제외하면, 문학을 잘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곳이 별로 없다. 또한 『앤 관광시장: 2007년 출구 조사』의 결론 부분에서 개선할 점으로 앤 관광지를 다시 찾는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앤 관광지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66)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문학과 관광을 잘 융합하여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을 문학과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 “문학 작품의 주인공 발자취 따라가는 관광”, “이야기가 있는 관광”등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인문학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훌륭하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고길환. “로빈 스킨의 『섬』에 활용된 일본 시형 연구”. 『국제언어문
학』 제23호(2011):1-26.
- A Profile of the Anne Tourism Market: Based on the 2007 Exit Survey
Data* prepared by The Tourism Research Centre,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PEI. 2008.
- Atwood, Margaret. *Selected Poems 1965-1975*.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4.
- _____. *Survival: A Thematic Guide to Canadian Literature*.
Toronto: Anansi. 1972.
- Bennett, Donna & Brown, Russell(ed.). *A New Anthology of Canadian
Literature in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Colombo, John Robert. *The Poets of Canada*. Edmonton: Hurtig Publishers.
1978.
- Martel, Yann. *Life of Pi*. Toronto: Vintage Canada, 2002.
- Mitchell, W. O. *Jake and the Kid*. Canada: Macmillan, 1972.
- Montgomery, Lucy Maud. *Anne of Green Gables*. New York: Bantam
Books, 2004.
- 캐나다 관광청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

Abstract

Canadian Literature and Tourism: Focusing on *Anne of Green Gables*

Geel Hwan Ko(Uid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anadian Literature and Tourism, and to review Canadian literature impact on Canadian Tourism focusing on the economic impact of Anne of Green Gables for PEI.

According to *Survival* by Margaret Atwood, a thematic guide to Canadian literature, Canadian literature has a number of key patterns such as survival, nature the monster, animal victims, early people, ancestral totems, family portrait, failed sacrifices and the casual incident of death. These key patterns constitute the shape of Canadian literature.

The Exit Survey data of the Anne Tourism Market shows 25 % of travellers visited Anne of Green Gables attractions during the 2007 tourism season from June 27 to September 30. It indicates *Anne of Green Gables* is very much an integral part of the Prince Edward Island tourism product. Visitors to Anne attractions tended to participate in a wider variety of travel activities and at higher rates than non-visitors to Anne attractions.

So we have to let Canadian literature impact on Canadian Tourism be good lesson.

Key Words: Canadian literature, Canadian Tourism, Canadian literature impact on Canadian Tourism, Anne of Green Gables, Stratford Shakespeare Festival

캐나다문학, 캐나다관광, 문학이 관광에 끼치는 영향, 빨강머리
앤, 스트랫포드 셰익스피어 축제

논문접수일: 2014.1.26

심사완료일: 2014.2.16

게재확정일: 2014.2.23

이름: 고길환

소속: 위덕대학교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이메일: kogh@uu.ac.kr